

금융의 새로운 블루오션, 마이크로크레딧

그라민은행과 그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그라민은행이 제공해온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신용대출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예금, 송금,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의 한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그라민은행의 사례를 통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내의 마이크로크레딧 추진현황, 마이크로크레딧과 관련된 세계 금융계의 최근 트렌드를 소개한다.

◆◆ 27달러로 시작된 획기적인 은행

세 아이의 엄마인 수피아 베굽은 대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하루종일 딱딱하게 굳은 맨땅 위에 웅크리고 앉아 부지런히 손을 돌려도 그녀가 버는 수입은 고작 2센트. 고리대금업자에게 9센트의 재료비를 빌리면 그 중 7센트가 고리대금업자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생존조건이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는 수많은 수피아들이 있었다.

얼마 후 그녀의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수입이 이전보다 60배나 늘어난 1달러 25센트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대나무 의자 만드는 작업을 기계화한 것도, 공공기관의 원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고리대금업자의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고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낼 필요도 없었다.

수피아를 도운 이는 치타공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였다. 당시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경제학이 대흥수로 1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가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 부근에 있는 조브라마을을 방문해 농촌의 실상을 조사하고 있던 터였다. 제자를 시켜 수피

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한 결과 42가구에 달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종잡돈을 빌려줘 고리대금업자의 착취 없이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좋은 값에 내다팔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돈의 총액은 단돈 27달러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유누스 교수는 자기 주머니에서 27달러를 내놓았다.

조브라에서의 경험 이후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던 유누스 교수는 1983년 수피아와 같은 빈민들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세웠다. 올해 그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라민은행이었다. 이 은행의 대출방법은 기존 은행과는 상당히 다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극심한 가난을 증명해야 하며 자기와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가 수익을 얻게 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5인 1조의 그룹은 구성원 서로를 체크하고, 서로 조언을 해주며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사업을 운영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룹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라민은행 직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참가해 대출금을 상환하며 새로운 사업구상을 논의하거나 추가대출을 신청하기도 한다.

동행의 대출금 상환 이행률은 80년대 초반에 이미 80%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98% 이상에 달한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그룹원 중 한 사람이라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이들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독특한 연대금융구조도 이 같은 높은 상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의 수혜자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성취를 경험하고 있다.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수혜자 중 3분의 1 가량이 가난의 문턱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3분의 1 또한 가난을 벗어나기 직전에 이르렀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대출 수혜자 가정의 유아사망률은 34%나 급감했다.

◆◆ 스스로 일하여 부를 쌓게 하라

마이크로크레딧은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받는다는 점에서 자선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적선을 베푸는 데서 탈피해 빈곤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수많

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은 채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식량이나 구호품을 지원해 빈곤층을 돕는 방식이 주류였다. 하지만 “타인이나 타국으로부터 먹을 것이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영원히 자립할 수 없다”고 유누스 박사는 주장한다.

지난 수십 년간 그라민은행, 액시온 등 빈국에서 활동해온 마이크로크레딧기관들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신용공여가 가난퇴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사실이 증명된 이래 오늘날에는 저소득 국가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시행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마이크로크레딧의 수혜자는 9,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다고 마이크로크레딧을 누구나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지점에 폭탄을 투하했고, 인도에서는 대출담당 임원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 또 마약밀매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마

<그림 1>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그라민은행

		
<p>일주일 단위로 몇 개의 대출자 그룹이 모이는 '센터' 모임. 센터 모임은 그룹원들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상호부조를 촉진시킨다.</p>	<p>소젖을 짜는 그라민은행의 대출자. 대출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젖소의 사육이며 그 다음이 식용 가축의 사육, 쌀 탈곡, 식료품점 운영이다.</p>	<p>그라민은행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부부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열렬한 지지자로, 클린턴 전 대통령도 마이크로파이낸스 펀드를 설립한 바 있다.</p>

자료: 그라민은행

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책임자가 살해되는 일도 있었다. 그라민은행의 대출자 가운데 95%가 여성이란 수치가 말해주듯 마이크로크레딧의 확산은 여러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슬람 급진파나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약업자들도 이를 환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예전에 그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자금화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아편을 기르도록 강요받았던 농부들에게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선진국가에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자영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돈만 빌려준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성공률은 5%대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2002년 보고서에서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저신용, 빈곤층이 창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이익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들은 창업자금 지원만큼이나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사전·사후 교육과 각자의 소질·적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 마케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창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실제로 자활의지를 갖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나를 중요한 요건으로 삼는다.

하지만 일자리 지원 및 기부효과와 지속성,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써 마이크로크레딧이 가진 잠재력은 분명히 크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

치고 나섰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10월부터 사회연대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시 영세자영업자 창업자금지원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자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은 상담과 실사 등의 업무를 맡으며 신한은행은 대출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금융기관이 삼위일체가 된 이상적인 일자리지원책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대출의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실직자·장애인·여성가장 등 저소득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다.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4.0%의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들이 담보도 없이 이런 조건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포함)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창업지원을 통해 신용취약자의 재기를 돕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지난 2004년 이후 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외는 별도로 총 6억원의 창업자금을 최저금리 수준으로 지원해 모두 64명의 채무불이행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사회연대은행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이곳의 영세사업자 대출 노하우를 습득한다는 취지로 조사역 2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 마이크로크레딧에서 블루오션을 찾다

마이크로크레딧이 당초 방글라데시 같은 극빈국가에서 빈곤구제를 목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예



컨대 제네바에 근거지를 둔 블루오치드 파이낸스(BlueOrchard Finance)는 2001년 기부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금융회사인데, 10명의 매니저가 1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다. 블루오치드의 텍사(Dexia) 마이크로크레딧 펀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의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에 투자해 5년간 리보 금리 +2%의 수익을 냈다. 동사의 증권부문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반의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발행해 7년간 연 8.5%의 확정수익을 얻고 있다.

더 주목을 끄는 일은 다국적 금융기관들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티그룹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잠재적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2004년 6월 '마이크로파이낸스사업부'를 창설해 20여 개국에서 동 사업을 벌이고 있다. 씨티그룹은 본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전세계 마이크로크레딧기관에 종잣돈을 기부하거나 금융기법을 전수해주는 등 지원을 해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영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사는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세계 최대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인 라키아트인도네시아은행의 원리금 상환율은 98.5%였다는데 주목하고, 기부와 지원의 대상이었던 마이크로크레딧기관들을 고객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는 수익창출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7월 씨티그룹 계열의 멕시코은행 바나멕스는 '콤포타모'란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의 채권 천만 달러어치를 판매하는데 성공했다.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 외부의 신용제공 없이 자기 재무역량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콤포타모가 처음이었

다. 씨티는 동 거래에서 채권발행·판매로 수수료수익을 올렸다.

ABN-AMRO는 브라질에 마이크로크레딧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도 소액 송금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밖에 비자 인터내셔널, 중국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등도 저개발 국가에서의 영리사업으로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교원 퇴직연금(TIAA-CREF)도 1억 달러의 마이크로크레딧 투자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비즈니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의 주식공개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아직 초창기에 있는 국내의 마이크로크레딧은 수익성보다는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나 지원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 서울평화상 수상을 위해 방한한 유누스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휴면예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제도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후원에 나서 등 최근 들어 정부, 민간 차원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갈수록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빈곤층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부를,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미래고객·미래시장 창출이라는 이익을 가져다줄 대안의 하나로서 마이크로크레딧에 거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장미화 barajang@shinhan.com